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북한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 북한이 3월 중순 국가개발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선보일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은 두만강개발 계획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투자를 먼저 이끌어내고 서방국가들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골자로 보임.

○ 국가개발은행이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라면 조선대풍투자그룹은 집행기구로, 실행 마스터플랜을 짠 것으로 전해짐.

○ 북측의 마스터플랜은 크게 봐서 두만강 하구 개발을 축으로 라진을 석유·천연가스 공급기지로, 청진은 제철·중공업·중기계 단지로, 그리고 김책, 의주, 함흥, 원산, 남포 등을 지역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임(조선대풍국제그룹 관계자).

○ 특히 개발계획이 주력할 분야는 우선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과 농업부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대풍 관계자는 SOC 건설 계획은 시간을 두고 제시할 예정이며 농업부문은 유엔기구 및 유럽연합(EU)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 "조선의 국가개발은행 지분에 참여하면서 국제금융계가 인정하는 지명도 높은 국제금융 CEO를 선임총재를 임명해 경영을 맡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극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서방국가들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 (조선대풍국제그룹 관계자).

데일리NK, "대풍그룹, 北경제인프라구축 10년 계획 추진," 2010. 2. 24
연합뉴스, "모습 드러내는 北경제개발 계획," 2010. 2. 24

2. 식량 사정

☐ 정부, 2009년 북한 식량생산량 411만 톤 추정

○ 정부는 북한의 2009년도 곡물 생산량을 411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들이 추산한 결과"라고 밝힘(정부 당국자).

○ 이는 정부가 추산한 200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인 431만 톤 보다 20만 톤가량 적은 양임.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식량소요량에 비춰 약 129만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작년 북한의 곡물생산이 부진했던 원인과 관련, 수해와 냉해가 겹치면서 옥수수 작황이 좋지 못했던 점, 남측의 비료 지원이 2008~2009년 연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꼽고 있음.

연합뉴스, "정부, 작년 北식량생산량 411만 톤 추정," 2010. 2. 20

☐ FAO, 북한 식량 125만 톤 부족

○ 북한은 올해(10월 결산 기준) 12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4분기 3개월간 외부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부족분의 8%에 불과, 올해 식량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외부로부터 확보한 곡물은, 직접 구매한 1만 톤과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원' 9만1천 톤 등 모두 10만1천 톤"이라고 보도함(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곡물량이 125만 톤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확보된 양은 매우 적다"고 지적 (FAO의 경제 분석가인 키산 군잘 박사)

○ "북한에서는 부족한 식량생산과 높은 식량가격, 옛 통화를 새 화폐로 재평가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화폐단위 변경 이후 12월13일 주요 생필품에 대해 새로운 국정가격을 정했지만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

미국의소리방송, "FAO, 1월 말까지 北에 곡물 10만 톤 유입," 2010. 2. 22
연합뉴스, "FAO 北, 식량 125만 톤 부족..외부조달 8% 불과," 2010. 2. 23

▢ 북한, 중국산 곡물 조기 확보에 노력

○ “춘궁기(3~5월) 시작을 앞두고 올 들어 2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식량의 규모가 예년 같은 시기보다 많고, 중국산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대북소식통)

○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등 약 20만 톤가량의 곡물을 유상 및 무상 거래 형식으로 조달해온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발생한 식량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자유아시아방송, “북, 중국 상인에 식량 주문 급증,” 2010. 1. 18
연합뉴스, “北→中 곡물주문 급증‥北 식량사정 안 좋은 듯,” 2010. 1. 19
연합뉴스, “북한, 중국산 곡물 조기 확보 노력,” 2010. 2. 24